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의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을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을 선원 ●FAX: (031)470-3116



대행스님

## 길을 묻는 이에게

제 683호 현대불교  
2008년 6월 11일(음력 5월 8일) 수요일 / 불기 2552년  
법공양 페이지

25

# 나에게 삼보가 있는 것이니 나로부터 삼보에 귀의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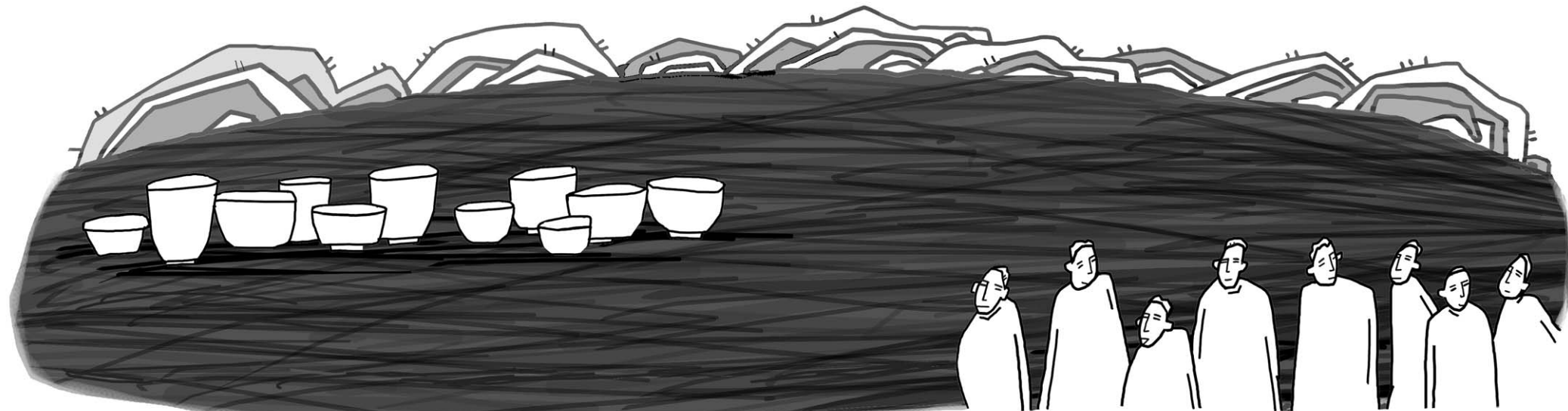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초발심의 경지가 어찌 바른 깨달음인지

**문** 초발심(初發心)이 곧 바른 깨달음이란 말이 있습니다. 제 자신도 부처님 가르침에 입문해서 수행해 온 지 오래지만 아직도 캄캄하기만 한데 초발심에 깨달을 수 있나니요. 어찌 초발심의 경지를 바른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말씀의 진정한 뜻을 일러 주십시오.

**답** 우리가 삼천 년 후나 삼천 년 전이나 그냥 오늘날인 것입니다. 마음은 제가 없고 붙잡을 수도 없고 빚갈도 없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실히 믿고 진실히 놓는 작업을 할 때, 또는 진실히 구하고 물러서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자기가 아닌 자기와의 만남의 소식을 얻을 수 있는 거고, 한생각이 바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은 그렇지 못합니다. 바깥으로 떠돌고 모든 행도 말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초발심에 깨치지 못하는 것이지, 초발심이 십 년이 갔든 이십 년이 갔든 하루가 갔든 일 초가 갔든 들어 안된 것이기 때문에 초발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깨달음이란 한 찰나니까.

그러니 우리가 맑고 행하는 동시에 뜻과 더불어 같이 진실하게 물러서지 않고 믿고 놓을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십 년이 갔다 하더라도 깨달음에 있어서는 십 년과 일 초가 맞먹습니다.

그러니 초발심이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깨닫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겁니다. 마음먹고 행하고 말하고 뜻하고 모든 것이 결부돼야 되는 것이지, 이 겁 하나라도 그것이 빠지면 안 되죠. 결부됐으니깐 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생산이 된 겁니다. 지수화풍 그 자체가 결부됐으니깐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바로 이 겁도 흠과 물로 개어서 바람에 말려서 불에 굽는 겁니다. 그렇게 인연에 따라서 한데 결부돼서 작용이 되기 때문에 겁 하나가 나오는 우주의 개공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빈 그릇이 나와서만 아니라 바로 이 겁에다가 물을 담아서 먹어야 이 겁이 겁이라는 빛이 있는 거지 뭐, 담아 먹을 수 없다면 아무 빛이 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깐 물 담아서 먹고 음료수 담아서 먹고, 이렇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우주개공이 이 겁에도 있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초발심에 삼천 년이 갔다 하더라도 행하지 못한다면 초발심도 없는 것이고 행한다면 일 초도 안된다 이 소리지요.

### 잡념이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문**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에는 지원에 가서 예를

에도 참석하고 설법도 듣고 그러는데, 가끔 설법이 잘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보고 잡념이라고 할지 망념이라고 할지... 또 제가 예를 가르치고 있는 도중에도 학생들이 잡념 즉,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같은 처지의 도반이나 학교에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잡념이 많은 학생들이 일념 정진할 수 있도록 스님의 원력을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답** 그건 선생님께서 그렇게 집중해서 모든 애들한테 에너지를 베푸세요. 그러면 아마 70%, 80%가 넘게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귀에 저절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물리를 띄워 주면 그냥 됩니다. 그것은 자기네들이 실천해 보고, 내가 이렇게 해서 저 애들이 얼마만큼 더 물리가 터졌나 하는 거를 가만히 지켜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니까 댁에서 해 보고 댁에서 지켜보고 댁에서 느껴야지, 그게 바로 내 법인 것이지, 내가 먹고 맛을 아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해 줘도 그걸 맛에서 느끼지 못하고 맛을 모르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안 그렇까요? 그렇게 해 보세요. 작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나한테 '스님은 용법(用法)만 가르친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말하는 게 우습잖아요. 자기가 먹고 자고 깨고 하는 게 그대로

용인데, 그대로 여려한 우리들의 법인데 아, 옹 빼놓고 송장이 되란 얘깁니까? 마음이 있음으로써 용이 있고, 생명이 있음으로써 이렇게 용이 있는 거지 아, 사람이 눈 하나만 지켜 따도 용인데, 그 거 빼놓고 저거 빼놓고 뭐 남는 게 있어서 송장 법을 가르칩니까? 그런 사람도 있습디다마는 용이다, 용이 아니냐를 떠나서 생활 자체가 그대로 바로 부처님이 가르친 법입니다.

그러니까 실천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만큼 진전이 되고 물리가 터져서 지혜롭게 학생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을까? 내가 얼마나 지혜롭게 내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지혜롭게 무심으로써 무전여행을 하면서 우주의 법칙 그대로 진출할 수 있을까? 내 마음으로써 그대로 모든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얼마만큼 무심법으로서 그 진실을 행할까 하는 거 말입니다.

### 불법승 삼보에 대해서

**문**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지 부처님께 지금하듯 삼 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과연 내가 어디에다 절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러면서 '아, 불법승 삼보님께 하지!' 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것이 마음에 와 닿지가 않습니다. 불법승 삼보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디에다 절을 해야 하는지요?

**답** 여러분이 요만큼 알면 나도 요만큼밖에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만큼 알면 나도 이만큼 알게 되고요, 여러분이 바다와 같다면 나도 바다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삼보에 귀의한다는 거, 그 움직여지지 않는 힘을 배출해 줄 수 있는 그 자(自)의 근본에서 마음을 내는 것이 법이니까요. 마음을 내는 것이 법입니다. 자성삼보라는 것이 불법승, 그리고 승은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움직여진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자기 자성한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바라밀이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삼보가 있고 삼심이 있어서, 삼심이 일심이 되고 이러한 거예요. 과거에도 내가 살았을 때 현제에도 내가 살고 미래에도 내가 살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밤과 낮에 비유해서, 밤이면 저승이고 과거, 낮이면 이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승과 이승이 어떻게 둘로 나뉘었을까? 밤에 잠을 자야 낮에 일을 하고, 그러니까 밤이 오는 것이 바로 과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낮이 오는 것이 현실이예요. 그래서 밤과 낮이 한데 합쳐져야만이 생과 사도 같이 구르면서 이게 진리의 끈이 되죠. 진리의 끈이 됴므로써 그냥 끝없이 돌아가듯 말이예요.

26면으로 계속

## 발로 해

(특수기능성 두안족열 양말)



발로 해가 오리지날 기능성!  
유사품이 가격은 비싸고 품질은 떨어집니다

- 절수형 최고의 수형도우미! (발양에서, 침선, 명상, 성지순례, 등산, 운전, 고시수험생)
- 양말 내부의 금강저문양과 도트에서 노폐물, 독소, 나쁜기운 빼는 특급비밀!
- 신는 순간 발이 따뜻해지며 매끈매끈, 보들보들, 보습보습 100%보장!

KBS (성로봉사의비밀, VJ특공대, 감성매거진 영복안오후) 출연  
SBS (0.2명의 기억) 출연 BBS (불교방송 (무명승, 밝이고) 출연  
동아일보 한겨레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 등 기사 다수  
특별판매가: 2만원 (매우저렴)



주문처: 서울법당 (02)-456-0035  
부산법당 (051)-583-7886  
대구법당 (053)-743-0063

인터넷만들고메일: www.법원정사.kr

##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크신 은혜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 드리며  
2008년은 더욱 크신 기도의보시공덕으로 가정이 늘  
번창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처음처럼 늘  
의지의 열정을 갖고  
일 하였습니다.

- 대우,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들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2008년은  
새로운 도약의 해로  
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화상담 후 방문약속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법명: 無生子)

사무실: 02)2677-5442

휴대폰: 011)288-2944

## 현대 결혼연구원

## 한국불교여래종 입종 안 내

사찰등록 및 여래종에 입종하여  
여래의 사도(스승)로서 포교 및 전도를  
함께할 종도·문도를 환영합니다.

한국불교 여래종 총무원

### ▶ 행자(남,여) 모집

불교교학 연구 및 수행을 통하여 포교 및 전도의 뜻을 둔 초심자를 모집합니다.

### 한국불교 여래종 총본산 대약사사

전화 043)731-2261 / 043)731-6454

팩스 043)731-6453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기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강 건너)

## 입종 안 내 대한선불 조계종

총무원장 영곡 호주  
종회의장 법달 원정  
교육원장 호타 원공  
사정원장 무착 효산  
호법국장 무타 대한

각 지역구 총무원장 입종을 환영합니다

대한선불 조계종은 선을 생활화하는 종단으로써  
불기 2552년 5월 17일 창종 하였습니다.  
대승적 불교를 지향하며 이 땅에 불교도 건설을  
함께하실 스님들을 기다립니다.

■ 교육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324-4번지 호타암  
전화 051)524-9406 / 010-7121-9406

■ 총무원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753-1번지 무전암  
전화 054)744-0181 / 010-3178-1223